

02 achievements

한국 축산기술 세계중심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의체
사업추진 및 국제쟁점 대응



:: 연구요약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기술협의체(AFACI, KAFAC) 회원 23개국에 한국축산기술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의 축산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식량기구 가축유전자원 정보시스템에 국내 유전자원 10종을 등재하여 자원주권의 확립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연**
031)620-3520 bloodtype@korea.kr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OECD 개발위원회의 회원국으로 개발도상국의 축산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

가축유전자원센터는 한국 측 담당자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23개국에 농촌진흥청의 농식품기술협력체를 통해 축산생산성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한편,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품종보호와 육성자 권리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도 발행된 제1차 가축유전자원 현황보고서와 유전자원의 지속적 보존·개발에 관한 세계행동의 개정에 대하여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우리나라를 대표해 대응하고 있다.

:: 연구성과

아시아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의체 구축 및 국내보유자원 주권 보호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의체(KAFAC) 축산분야는 2014년 2월 세네갈에서 12개국이 모여서 양계생산성향상 기술협력사업을 범아프리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가축유전자원센터는 사업발굴을 위한 사업제안 조정과 기술이전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시아 농식품기술협의체(AFAC) 축산분야에서는 2014년 9월 방글라데시에서 11개국 대표가 가축유전자원 활용 및 생산성제고 워크숍을

개최하고 회원국이 수행하고 있는 재래가축 목록화사업 진행과정을 논의하였다. 특히 방글라데시 축산연구소에서는 북부 뱅갈지역의 회색소에 대하여 AFAC사업으로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의 품종보호와 육성자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 돼지, 닭, 메추리 및 비둘기 10종에 대하여 2014년 8월에 국제식량기구 가축유전자원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였다.

:: 활용방향 및 기대효과

재래가축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

축산관련기술을 아프리카·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개발도상국의 축산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며,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유전자원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보유자원의 주권과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품종유지 및 개량에 대한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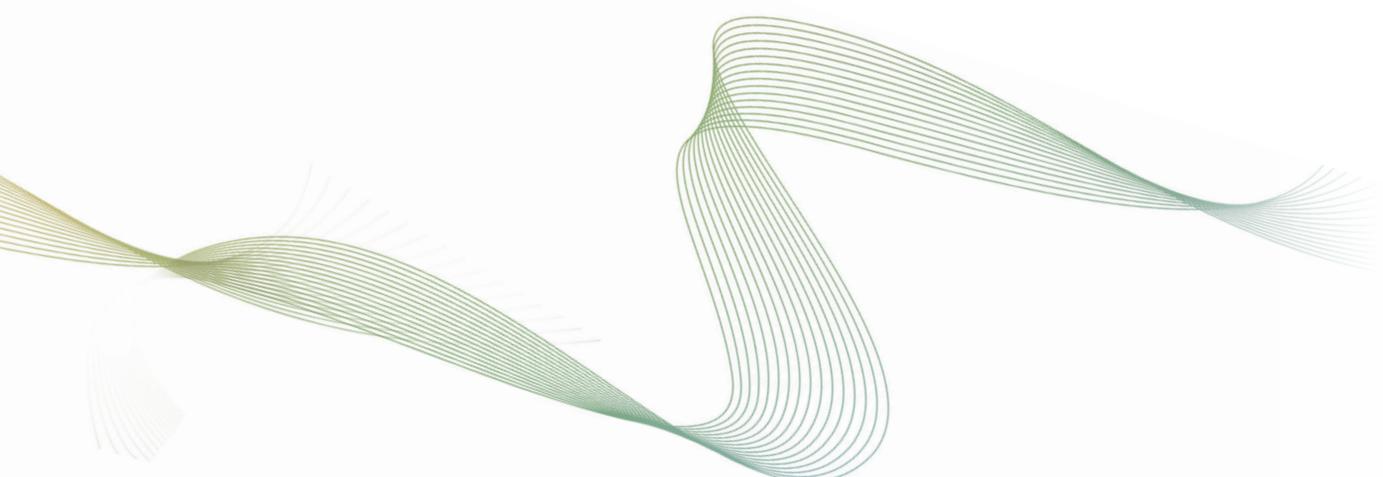
Image



01 AFACI
연례평가회



02 KAFACI
연례평가회





03 방글라데시
회색소 품평회



04 방글라데시
회색소 품평회



05 방글라데시
회색소 품평회